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

- 경협 부문을 중심으로 -

- I. 경협 관련 합의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 II. 경협 부문별 기대 효과
- III. 자원 조달 방안 및 과제

Executive Summary

□ '2007 남북 정상 선언'의 경제적 효과

(2007 선언의 경협부문 주요 내용) 2007년 10월 4일 발표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개성공단 2단계 조기 개발, SOC 인프라 확충(해주항 활용,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건설), 백두산 국제관광단지 조성, 환경 보호 및 수해방지를 위한 조림녹화 사업, 식량난 완화를 위한 농업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7 선언의 의미) 2007년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으로 첫째, 남북간 물류망 연결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의 기반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및 경제발전과 평화번영의 선순환 구조 형성 토대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셋째, 북한내 조림녹화 사업 등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넷째, 한반도 내에서의 백두산 관광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공동으로 견제할 수 있다. 다섯째, 남북 경제공동체 실험 단지로서 개성공단의 성공 기틀이 마련되었다.

(경협 사업의 경제적 효과) 경협 사업의 경제적 효과로는 우선 북한의 경제 개발과 남한의 통일비용 감소를 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통한 서해안의 고질적인 해상 충돌 요인 제거 및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한반도 물류망 연결 및 TSR, TCR 연계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및 중화학 공업 수준으로의 경협 확대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또한 평화협력체제 전환에 따른 긴장 완화와 이로 인한 준비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

(자금 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이번 남북정상간 합의된 경협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자금소요는 최대 113억 달러에 달할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 시차를 두고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자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5년 분할 투자할 경우 연간 투자액은 북한 GNI(2006년 256억 달러)의 8.75%에 해당하나, 남한 GDP(2006년 8,873억 달러)의 0.25%에 불과하다. 이번 합의된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소요는 규모가 크지만,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국내외 개발펀드 조성, 국제 지원자금 유치를 통하여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경협부문 투자비용 >

(단위 : 억 달러)

구 분		비 용	계
해주특구	500만 평	46	46
개성공업지구	2단계	25	25
SOC	해주항 확장	3	23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	
	안변 및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2	
백두산	도로·항공 인프라 등 종합관광레저시설	13	13
환경보호	조림을 통한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2	2
농업개발	비료 생산	3.5	4
	생산력 증대 사업	0.5	
총계			113

1. 경험 관련 합의문의 주요 내용과 평가

1. 주요 내용 및 평가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개성공단 2단계 조기 개발, 철도 등 SOC 건설, 관광사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7 남북 정상 선언'에 합의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합의
 - 해주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 설정
 - 민간 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 한강 하구 공동 이용
- 개성공단 2단계 조기 개발
 - 개성공단 2단계 사업 착수
 - 3통 문제 해소(문산-봉동간 철도 화물 수송 합의)
 - 법 제도 정비 및 민족간 각종 우대 조치
- SOC 인프라 확충
 - 경의선 정상화(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북응원단 경의선 열차 이용 합의)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을 위한 삼지연 공항 개보수
 - 해주항 개발
- 백두산 관광 사업
 - 백두산 관광 실시 합의
 -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 기타
 - 농업 협력 사업 및 환경 협력 사업(조림사업 등) 합의
 - 안변·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 지하자원 개발 합의
 - 남북경제협력공동위를 부총리급으로 격상

- (종합 평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민족 공동 번영의 기반 조성은 물론, 경제와 군사·안보의 선순환 구조 형성의 발판을 마련
 -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 건설의 기반 조성
 -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의 개보수·연결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연결됨으로써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조성
 - 나아가 TKR이 중국횡단철도(TCR)과 몽골횡단철도(TMGR)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과 연결될 경우,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및 경제발전과 평화번영의 선순환 구조 형성 토대 마련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개성공단 조속한 개발은 남한의 인천공항과 연계하여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의 토대가 됨
 - 또한, 평화 수역 조성을 위한 군사적 신뢰 구축으로 인하여 기존의 군사안보벨트를 평화번영벨트로 전환
 -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첫걸음
 - 북한내 조림녹화사업 추진을 통한 청정 한반도 조성
 - 현세대는 물론 후손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지속가능 발전의 첫걸음 시작
 - 한반도 내에서의 백두산 관광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견제
 - 중국을 통한 남측의 백두산 관광은 연간 약 12만 명에 달하며, 중국은 장백산 공항 건설과 UNESCO 세계 유산 등록을 추진 중임
 - 남북 경제공동체 실험 단지로서 개성공단의 성공 기틀 마련
 -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사업의 착수와 문산~봉동간 철도화물 수송 시작, 통행·통신·통관 등의 제도적 보장 장치의 조속한 완비 등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 이는 3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과 성공적인 남북 상생(win-win)의 경험 모델 및 남북경제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정착하는 계기를 제공

2. 거시적 효과

○ 지정학적 위험 감소로 인한 장기적 대외신인도 상승 기대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설치로 서해안의 고질적인 해상 충돌 요인 제거
 -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기존의 군사안보벨트에서 평화번영벨트로 전환
 - 이를 통하여 1999년, 2002년 등 빈번히 발생해온 남북간 무력 충돌 요인을 제거하고, 공동의 경제발전을 추구
-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포함한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함으로써 향후 남북 경협에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
 - 3통 문제 해소는 기존의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될 남북 경협의 중요한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평가

○ 한반도 물류 중심지의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 건설을 통하여 한반도의 半島性을 극복하고 대륙을 연결
 - 한반도 물류망 연계는 향후 TSR, TCR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허브로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
- 남북한간 산업 협력을 통하여 산업 경쟁력 제고 가능
 - 개성공단 및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조성으로 서해안 산업벨트 조성 가능
 - 안변, 남포의 조선협력단지 조성으로 기존의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 수준으로의 경협 확대

○ 평화협력체제 전환에 따른 긴장 완화 및 군비 절감 가능

- 합의서에 명시된 ‘불가침 의무의 준수’, ‘정전체제의 종식’ 등으로 평화협력체제로 전환될 경우 남북간 긴장 완화
 - 이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군비를 남북한 산업 발전에 투입 가능

II. 경험 부문별 기대효과

1.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중에서 경제적 분석이 가능한 부분은 해주경제특구로서, 그 경제적 효과를 분석
 - 해주경제특구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지 않아서 개성공단의 개발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준용하여 추정
 - 해주경제특구의 개발 면적을 500만 평과 1,000만 평의 경우로 가정
 - 심천특구의 면적은 1억 2천만 평, 대불산업단지 350만 평, 개성 2,000만 평
- **신공단 개발 비용** : 500만 평 개발시 46억 달러, 1,000만 평 개발시 92억 달러 소요 추정
- **복측의 경제적 효과¹⁾**
 - 직접적 효과는 인건비 수입, 원부자재, 재정 수입 등을 포함하여 500만 평 개발시 약 33억 달러, 1,000만 평 개발시 약 66억 달러 추정
 - 인프라 조성 및 신도시 건설 등 간접적 효과는 500만평 개발시 약 50억 달러, 1,000만 평 개발시 약 100억 달러 추정
 - 이외에 완공 후 운영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으나 입주 산업 종류 등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어 추정에서는 제외함

< 해주특구 개발비용 및 복측 경제적 효과 추정 >

(단위 : 억 달러)

	공단개발비용	경제적 효과	직접적 효과	간접적 효과
500만 평	46	88	33	50
1,000만 평	92	166	66	100

주 : 개성공단의 경우 준용

1)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 중 최저수치 기준

2. 개성공단 개발 비용 및 효과²⁾

- 총투자 규모: 2004년부터 2011년까지 8년간 약 83억 달러의 건설비 투입예정

< 개성공업지구 총투자계획 >

(단위 : 백만 달러)

	부지조성비	공단 건축비	내부 기반 시설	외부 기반 조성비	합계
제1단계(2006년)	90	672	100	58	920
제2단계(2008년)	207	1,839	212	202	2,478
제3단계(2011년)	513	3,929	288	170	4,882
합 계	810	6,440	600	430	8,280

- 북측의 경제적 효과

- 공사 기간(2004~2011년) 중 효과: 약 150~170억 달러의 직간접 효과(직접적 외화 가득 효과는 약 59~79억 달러, 공단, 인프라 조성의 효과는 약 9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 완공 후 효과: 매년 약 14~20억 달러의 직접 외화 수입과 약 200억 달러의 수출 효과가 기대
- 산업 연관 효과: 이외에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약 223억 달러 예상, 11년간 누계 고용 및 수출효과는 각각 약 152만 명과 약 727억 달러에 달함

< 개성공단 개발의 경제적 효과(종합) >

(단위 : 억 달러)

구 분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누계 (11년간)	완공후 (매년)
북측의 경제적 효과	13.47 (14.57)	32.85 (35.60)	103.28 (118.89)	149.61 (169.06)	14.21 (19.63)
직접적 외화가득효과	3.46 (4.65)	7.91 (10.66)	47.72 (63.33)	59.09 (78.54)	14.21 (19.63)
공단· 인프라 조성	10.02	24.94	55.56	90.51	-

2) 2004년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임.

3. 북한 SOC 개발 투자

1) 투자 규모 추정

- (남북정상회담 합의 중 대북 SOC 개발 투자) 해주항 활용, 개성-신의주 철도 및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에 투자할 계획이며, 총 투자 비용은 약 23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해주항 개보수 : 해주항 확장에 3억 달러 소요 예상³⁾
 -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 개성-신의주 간 철도 거리는 420km이며, 약 15억 달러 소요될 것으로 예상⁴⁾
 -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 고속도로 170km 개보수에 약 3억 달러 소요 예상⁵⁾
 - 안변 및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 중급 조선협력단지 건설에는 약 1.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⁶⁾

< 대북 SOC 개발 투자 세부 내역별 비용 추정 >

(단위 : 10만 달러)

세부 내역	금액
해주항 확장	3,000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	15,355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3,077
안변 및 남포에 조선협력단지 건설	1,520
합 계	22,952

3) 토지공사(2006) 추정.

4) 안병민, 북한의 교통 부문 현대화를 위한 러시아의 지원 현황과 전망, 월간교통, 교통개발연구원, 2003. 06

5) 통일부(2006) 추정.

6) 비용산출은 STX 그룹이 중국 다롄시에 중형 조선소를 짓기 위한, 투자비용인 약 760억 원을 기준으로 함.

2) 북한 SOC 개발 투자의 기대효과

- (기본 가정) 2007년 10월 4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SOC 사업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23억 달러)에 대한 기대효과를 산출함

(1) 북측 기대효과

- ① (북한 경제 성장에 기여)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 발생으로 북한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이 기대됨

- 북한 SOC 개발로 북한의 생산유발효과⁷⁾는 총 46억 달러, 부가가치유발효과⁸⁾는 18억 달러, 고용유발효과⁹⁾는 28만 6,000명이 될 것으로 예상
 - 2006년 기준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북한 GNI의 7.7% 수준이며, 북한 고용유발효과는 북한 인구의 1.4% 수준임.

- ② (산업별 성장 유발) 북한 SOC 개발은 북한의 개별적인 산업에 대해 생산 및 부가가치유발 효과를 발생시켜, 북한 전체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임

- SOC 개발에 따르는 생산유발효과로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업이 가장 컸으며, 제조업, 서비스업, 광업, 농림어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SOC 개발에 따르는 북한 산업별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

(단위 : 10만 달러)

산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농림어업	141	97
광업	622	401
제조업	14,544	3,955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업	22,833	9,026
서비스업	7,514	4,525

7) 이인규의 「한국경제의 산업연관분석 동태화」는 1995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SOC 투자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북한 SOC 개발에 따르는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함. 이인규에 따르면 SOC 개발에 7조 5,539억 원을 투입할 경우, 15조 3,49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함.

8) 이인규의 「한국경제의 산업연관분석 동태화」 분석 결과를 활용함. 1995년 기준으로 SOC 개발에 7조 5,539억 원을 투입할 경우, 6조 4,36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발생함.

9) 안홍길의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진단」 분석 결과를 활용함. 안홍길에 따르면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준으로 SOC 투자 중 건설업 부문에 1억 원이 투자될 경우, 17,871명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

③ (경제 자립 기반 확보) 경제 개발 노하우 축적, 북한 내 산업 인프라 강화, 생산 기반 확대 등을 통한 경제 자립기반이 강화될 것임

- 산업 인프라 강화 : SOC 개발에 따라 기존 산업 시설의 개보수, 신설 등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르는 산업 인프라 또한 점차 강화될 것임
- 생산 기반 확대 : 도로, 철도 등 물류 기반의 확대와 산업 인프라의 강화로 생산 기반 또한 점진적인 확대가 예상됨
- 경제 개발 노하우 축적 : 대북 SOC 사업은 그 자체로 SOC 개발 관련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이 이루어지지만, 산업 인프라 및 생산 기반을 확대시켜 북한의 고용 및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제 개발의 노하우 축적을 촉진시킬 것임

④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 SOC 개발에 의한 북한 경제의 성장은 북한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을 제고시킬 것임

- SOC 개발은 북한 주민의 생활고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각종 자연재해 피해 축소를 통해 북한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할 것임

⑤ (대외 신인도 회복) 북한 SOC 개발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의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북한의 국가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음

- 현재 S&P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방의 신용평가기관들은 북한경제에 대해 평가조차 하지 않고 곧 붕괴될 것으로 보아왔기 때문에 SOC의 확충은 이런 국제사회의 불신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 이러한 국가 이미지 개선은 교역량을 증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2) 남측 기대효과

① (관련 산업 수요 창출에 기여) 북한의 SOC에 대한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자재, 물자, 건설장비, 차량 등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물류비용 절감 효과 또한 유발할 것으로 기대됨

- 산업 수요 창출 기대 고조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전후로 한 주요 철강, 전력 그리고 건설사들의 주가 상승은 남북 경협 활성화를 통한 국내 산업 생산 수요 증대 기대를 간접적으로 뒷받침
- 이외에도 금융과 통신 서비스의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 금융 서비스 확대 : 해주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국내 금융기관이 진출할 경우 서울과 북한 간 금융 서비스 뿐 아니라 중국과의 연계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등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전개가 기대
 - 통신 서비스 확대 : 개성, 금강산 등 경협 지역의 통신 지원 확대는 물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통신 지원 수요로 對北 통신 서비스가 확대 될 것임

② (물류비용 절감) 그동안 해상 운송으로만 남북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북한 SOC 개발로 육상 운송이 가능해질 경우 남북 간 물류비를 줄일 수 있음¹⁰⁾

- 현재 남북간 교류는 인천항에서 남포항을 통한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철도 및 도로 등 북한 육상 교통 관련 북한의 SOC 개발은 남북간 교역에 다양한 운송 수단을 제공함
- 보통 컨테이너 하나 당 운임이 현재 720달러 수준인데 경의선 철도를 이용하면 200달러 수준으로 절감

③ (산업별 성장에 기여) 북한 SOC 개발에 따르는 남한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10) 국정브리프 참조.

- 북한 SOC 개발에 따르는 남한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제조업,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농림어업, 광업 순을 기록함

< 남한 SOC 개발에 따르는 산업별 효과 >

(단위 : 10만 달러)

산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농림어업	299	181
광업	231	147
제조업	19,989	5,479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업	895	479
서비스업	12,983	6,984

주 : ()는 각 산업별 2006년 GDP 대비 비중.

- ④ (경제의 新성장 동력 확보) 풍부한 북한 지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북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등은 남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

- 북한 지하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 교통망의 개선은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
- 동북아 물류 허브 조성에 기여 : 한반도 종단철도(TKR)에서 대륙 철도망(TSR, TCR) 연결을 통해 중국,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빠르고 저렴한 물류 이동이 가능해 짐에 따라 동북아 물류허브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

- ⑤ (통일비용의 절약) 북한 SOC 개발에 대한 투자는 북한 경제의 생산유발 효과 발생, 경제 자립 기반 확보,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통일비용의 절약 효과를 가져 올 것임

- 先 북한 경제발전 후 통일의 단계적 통일 전략 추진은 막대한 통일 비용의 절약을 가져올 것임

4. 백두산관광 사업

- (사업 추진 개요) 백두산 관광 합의로 백두산을 세계적인 생태 보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큰 경제 효과가 기대됨
 - 백두산관광 사업은 한국관광공사와 현대아산 -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간에 합의(2005. 7. 14)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협의 단계에 불과
 - 현재 중국을 통해 백두산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90%가 남한 관광객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수요를 백두산 관광의 실현으로 북한 관광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개발 계획) 백두산 지역을 알프스의 알펜시아와 같은 4계절 국제 레저 타운으로 개발
 - 이를 위해 삼지연 공항을 비롯하여, 공항과 도로, 레저 숙박 시설 등의 대규모 관광 인프라를 구축
 - 특히, 백두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목표 수준으로 투자·개발한다고 가정¹¹⁾
 - 나아가 백두산 지역을 평양은 물론, 동북아 연계 관광 상품으로 개발을 모색

- (북측 기대 효과) 외화 획득과 관광 인프라 확충은 물론, 북한의 산업별 성장 촉진에 기여하며, 중국의 동북공정을 견제
 - 백두산 지역을 개발할 경우, 북측은 약 23억 달러의 생산 유발 효과와 8억 달러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
 - 생산 유발 효과의 경우, 이는 2006년 북측 명목 국내총생산(GNI) 256억 달러의 약 9%에 달함
 - 또한, 장백산 공항 건설과 UNESCO 세계 유산 등록 추진 등 중국의 동북공정 견제에도 보탬

11) 평창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12억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음

5. 기타

1) 환경 보호

- (개요) 북측 황폐 산악지에 대해 산림 복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확보된 배출권을 판매하여 조림 재원을 확보하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
- (비용) 10만 ha 조림 시 조림사업 비용 약 1.4억 달러, 관리 비용 약 0.6억 달러로 초기 행정 비용을 제외하면 총 약 2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약 0.2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
 - 사업비용 : 총 1억 9,510만 달러 = 초기 행정 비용(49만 달러) + 조림 사업비용(1억 3,926만 달러) + 관리 비용(5,535만 달러)
- (기대 효과) 북측은 자연 재해 예방과 산림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남측은 통일비용의 절약 효과가 매우 클 것임
 - 북측 효과 : 산림 복구를 통해 자연 재해 예방과 산림업 육성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북측 지역의 산림녹화 사업은 홍수와 가뭄 등의 수해 예방은 물론, 자연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홍수 피해 예방 효과 : 1995~96년에 있었던 최대 홍수 피해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68.5억 달러의 개선 효과
 - 또한, 조림 사업을 통한 직접적 인건비 수입과 버섯 및 과실수 재배·수출 등 간접적 소득 증대와 외화벌이 효과 발생
 - 조림사업 20년 동안 노무비와 관리비 0.6억 달러의 수익 창출이 기대(연간 약 311만 달러)
 - 남측 효과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2005. 2)로 한국도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 감소 효과도 큼

< 북한 지역 조림 사업 비용 추정 >

조림사업 ha 당 사업비 ¹⁾			10만 ha 조림시
	단위소요량	단위금액(달러)	단위금액(10만 달러)
< 조림 사업 비용 >		1,392.5	1,392.6
- 노무비	32.9인 ²⁾	67.7	67.7
- 재료비		1,022.9	1,022.9
· 잣나무 묘목	3,000 본	1,014.0	1,014.0
· 재산경계표주		8.9	8.9
- 운반비		37.2	37.2
- 경비		234.2	234.2
- 부대비		30.7	30.7
< 관리 비용 >		553.5	553.5
- 풀베기(1~5년차)		344.0	344.0
- 가지치기(1년, 5년차)		130.7	130.7
- 나무 숙아내기(10년차)		78.8	78.8
< 합계 >		1,946.0	1,946.1

주 1. 조림 비용 추산은 산림청 고시 제 2007-10호 '2007년 조림 비용'을 적용하고, 관리 비용 추산은 남북임업협력방안연구를 참고하여 산출.

2. 노무비 추산은 현재 개성공단 적용 임금(57.5 달러)을 근거로 일당을 계산하여 산출.

2) 북한 농업 개발

- (개요) 북한의 식량난 완화 뿐 아니라 경제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인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통일 자금을 절약하기 위함
- (비용) 비료 공장 건설, 농업부문의 생산력 증대 사업 등 최소 4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비료 공장 건설 : 통일부의 2005년 '북 희망 경협사업' 문건에 따르면 북한이 비료 공장 건설을 위한 비용으로 3.5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생산력 증대 사업¹²⁾ :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시범 농장 조성 및 농업 기자재 생산 공장 건설 등 0.5억 달러의 비용이 북한의 농업부문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기대 효과) 북한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난 및 경제난 해소, 남측은 통일 자금을 절약할 뿐 아니라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족 동질감을 제고
 - 북측 효과 : 북한에게는 비료 생산 증대, 남측의 영농기술 이전 등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식량난 및 경제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남측 효과 :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에 의한 對北 식량이나 비료 등 농업 관련 지원 비용 절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족 동질감 제고, 나아가 북한 농업 발전을 통한 통일 비용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임

12) 국회예산정책처, '남북협력기금의 '투자성' 사업 분석', 2004년.

Ⅲ. 자원 조달 방안 및 과제

1. 북한 개발 자원 조달 방안

- (자원 조달 방안) 북한 SOC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유형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스(PF : Project Finance), 정부 지원 자금 활용, 국내외 펀드 조성, 국제 자금 유치의 4가지 유형이 있음
- (프로젝트 파이낸스) 철도,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는 금융 기법
 -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에너지, 공항 등 북한 SOC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은 거액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 주체가 이를 조달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 따라서 계획된 사업(project)의 수익성을 담보로 민간 투자 자금을 모집하여 거액의 재원을 조달함으로써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
 -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SOC 개발에 적합한 기법으로는 BLT, BOT, DBFO 등이 있음
 - * BLT(Build-Lease-Transfer) : 사업 시행자가 SOC를 개발한 후 일정기간 동안 운영권을 임대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임대기간 종료 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법
 - * BOT(Build-Own-Transfer) : BLT와 유사하지만, SOC 개발 후 일정기간 동안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 DBFO(Design-Build-Financing and Operate) : 사업 시행자가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금융 및 운영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주로 민관 합작 사업을 대상으로 함
- (정부 지원 자금 활용) 남북한 상호 교류와 협력 및 대북지원 등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조성한 정부의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 북한 SOC 개발을 위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자금으로는 남북 협력 기금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이 있으며, 향후 남북 경험 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수 있음

- 남북협력 기금 : 인적 왕래 지원, 사회문화 협력 지원, 이산가족 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사업, 교류 협력 기반 조성 사업의 무상 지원과 교역자금대출 지원, 경험 자금 대출 지원 등 유상지원으로 구성됨
 - (대외경제협력기금) :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개도국들에 대한 차관 지원을 통한 경제협력을 위해 설립된 기금으로 개도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 SOC, 환경관련사업, 교육 및 보건위생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 (남북경협 기금) : 남북 교류가 현재보다 더욱 확대됨으로써 남북경협의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경우 현재 남북협력 기금에서 조달되고 있는 남북경협 기금을 독립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국내외 펀드 조성)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모집하여 이를 통해 북한 SOC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
- 펀드 조성 방법으로는 증권사, 투신사 등 금융 회사의 펀드 상품과 복권을 활용할 수 있음
 - 금융 회사의 경우 북한의 철도, 고속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통일 펀드*(가칭) 상품 개발을 통해 개인 투자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음
 - 또한 정부는 통일 복권(가칭)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자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이를 북한 SOC 개발에 투자할 수 있음

* 실제로 2006년 5월 영국의 투자사 앵글로-시노 캐피털은 북한의 광물 및 에너지 부문에 투자할 계획으로 인프라펀드인 조선개발투자펀드(CDIF : Chosun Development and Investment Fund)를 개발하여 1억 달러의 투자자금을 모집

* 인프라펀드(Infra Fund) : 사회간접자본 개발에 대한 출자와 용자를 위해 설립된 뮤추얼 펀드 중 하나로 SOC 부문의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함

- (국제 자금 유치) 국제 자금을 유치하는 방법에는 국제기구의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활용하는 방법과 미국, 일본 등의 원조 공여국의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공적개발원조 : 세계은행 경제개발협회(IDA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국제통화기금(IMF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아시아개발은행(ADB : Asian Development Bank) 등을 통해 북한 SOC 개발을 위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음
 - 원조 공여국 지원 : 북·일, 북·미 간 관계 개선을 통해 개발도상국이나 빈민국에 지원되는 재원을 활용하거나, 북한의 우방인 중국·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2. 과제

(1) 북측

- (세계 시장질서예의 편입) 지속적인 對美 관계 개선을 기반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등 세계 시장질서에 조속히 편입해야 할 것임
 - 북한은 IMF 등의 각종 국제기구 가입에도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협력을 얻어내야 할 것임
 - 북한이 국제 무역·금융체제의 자원 활용을 통해 경제회복·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해야 함
- (북한 내 법·제도의 정비) 국제 금융기구나 미국, 일본 등 주요 원조 공여국의 지원 조건이 과거 '안보 중심'에서 '국제 규범 준수'로 변하고 있어, 우선 북한 당국이 국제규범에 맞게 내부의 법·제도를 정비해야 함
 - 경제적 필요, 인권 준수 상황, 원조 효율성에 대한 전망, 원조 과정, 원조 공여국의 수혜국 정부에 대한 구속력 여부 등 개발 원조 시의 수혜국 정부에 대한 국제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

- 따라서 북한은 원조 수혜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제 규범의 준수와 관련, 현재 경제적 필요 사항 이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제고해야 함
- 또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개발원조 및 경제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법·제도 개혁을 통해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행동 준칙의 능력을 증진시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
- (대외 신뢰감 조성) 향후 북한이 국제 지원의 유지·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과 효과 극대화 전략을 제공해야 함
- 원조 과정에서 북한의 경제 실적 평가가 지원액의 증액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경협 사업의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북한 경제 실적의 극대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제 지원의 유지·확대를 도모
- 대북 경제 지원 가능 영역은 양국간·다국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지만, 북한은 향후 북한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확대가 기대되는 영역들에 관한 우선순위 및 사업의 추진 계획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임

(2) 남측

- (對국민 경협 공감대 형성) 對北 경협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對국민 경협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범국가적인 사업 추진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 이를 위해서는 對北 경협 사업에 대한 대내외 홍보 강화를 통한 對국민 인식 제고 및 대외 이미지 개선, 개별 경협 사업 추진에 대한 투명성 제고 등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경협 정책 연속성 유지) 과거 및 現정부의 對北 경협 사업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관·재계의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임
- (국제 컨소시엄 조성 등을 통한 경협사업의 안정성 제고) 한편 경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조성 등을 통해 사업 안정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경협사업의 안정성 제고 : 남북 경협사업 추진을 위한 가치 '북한개발촉진을 위한 국제 특별신탁기금' 등 다국간 협력 국제 컨소시엄 조성을 통해 경협사업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함